

구텐베르크 은하계

The Gutenberg Galaxy (M. McLuhan, 1962, University of Toronto Press)

김예란 (2009 5 15)

1. 두 개의 대조적인, 상이한 사회와 경험을 동시에 겪을 때 갖게 되는 혼란과 불투명한 상황:

- 중세의 부활? 재부족화?
- 근대를 뛰어넘어, 전자 지구촌의 시대로 가는 단계

2. 전기시대에 우리는 확장된 능력과 감각을 통해 단일한 경험적 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근대적 시각 중심의 편향성 극복
- 기술의 발전 - (5개) 감각의 균형적 확장 - 집합의식의 상호작용 및 공유가능성

3. 현대가 긴장, 불안, 폐쇄적인 사회가 된 이유 - 근대의 알파벳 등의 표음문자체계 - 인쇄술을 중심으로 한 시각중심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혐의를 둠

4. 구텐베르크 은하계

0) 그리스 후기에서부터 시각화가 진전되었으나, 근대와 같이 문자중심의 시각 체계는 아니었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분계점)

* 플라톤: 문자는 기억을 돕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회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외양만을 제공할 뿐이다 (Phaedrus)

1) 중세

- 역할의 세계, 부족,
- 구어와 귀(구술), 촉각, 조형
- 필사, 표의문자(모든 감각이 동시에 개입하는 하나의 복잡한 Gestalt; 감정이입과 공감작) 낭독, 주술, 스킴라 철학 (동시적, 다차원적, 모자이크)
- 저자/제작인/사서/독자 공중/진품의 경계 흐림
- 쿨 미디어 (필사)

2) 근대

- 속도, 정밀성, 권력의 증대, 기계화, 영혼의 불안, 자기분열적 인간
- 원근법(고정된 주체의 위치), 선형화, 개별화, 객관화, 반복적, 문자와 눈(시각), 내부지향적, 묵독, 시각에 의존한 기억술. 망막
- 속도, 정밀성, 권력의 증대, 기계화, 시각적 양화

- 문명, 전문화, 직업의 세계, 문명, 머리와 가슴의 분리 (근대 유럽의 트라우마), 근대적 내셔널리즘, 개인주의,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양적 계산에 의존한 17세기 정치적 계산과 18세기 쾌락주의적 경제적 계산법.
- 지식과 정보의 enclosure (프라이버시, 사유재산화), 확실성의 지식의 목표, 언어의 획일화 및 휴대용 상품화, 측정, 예술과 과학의 이별, 언어(라틴화)의 고정, 정제, 사어화, 표준화 (철자, 문법), 침묵과 무의식 언어의 소멸,
- 핫미디어 (인쇄 - 인쇄는 구술은 물론 필사문화보다 훨씬 더 개인화 유발)

* 표음문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종류의 문자에 의한 글쓰기도 인간을 청각적 망인 총체적 상호의존과 상호관계로 구성된 세계를 이처럼 변환시킨 일은 없었다. 구술적이고 청각적인 공간의 동시적 관계의 주술적 공명 세계로부터 탈부족화하여 인간이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것은 표음 문자를 통하는 길이고, 이는 결국 인간을 이중적인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었다 (51) *

3) 상상력의 시각화, 문학, 건축, 회화, 책, 카메라 옵스큐라, 응용기술, 인쇄된 악보 (시와 음악의 분절)

: 구텐베르크 시대의 패러독스: 얼핏 보기에 활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정적이고, 영화적인 의미에서 ‘활동’적이라고 하는 패러독스.

cf> 돈키호테, 라블레, 포프, 블레이크, 제임스 조이스: 동시성의 세계, 근대적 신화 세계.

4)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해체: 징후와 역반향

- 유클리드 공간 -> 곡선형 공간의 발견 (아인슈타인, 1905)으로 공식적 해체: 선형적 전문주의와 고정된 시점주의의 종결, 현실 세계와 먼 단편화된 지식을 거부.
- 잠재적 해체는 이미 전신과 더불어.
- 박스오피스 (대중예술) -> 주술적 문화 (원시주의, 낭만주의)의 귀환
- 역반향:

* 이러한 새로운 감각 비율은 사람들에게 놀랄 만큼 새로운 세계를 제공하고, 이는 모든 감각들 사이에 강력한 새로운 ‘폐쇄’나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지각 모형에 개인 및 사회적 삶이 적응해가는 과정의 후반에야 일어난다. 전자파의 발견은 인간사에 있어서 동시적 ‘장’을 재창조하여 인류라는 가족이 오늘날 ‘지구촌’ 아래 존재하게끔 하였다. 우리는 옛날 부족들의 북소리가 미칠 수 있는 작았던 공간만큼이나 온 세계가 응축된 오직 하나뿐인 공간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야만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19세기에 사람들이 ‘진보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이다 (53, 69).

5. 현대적 전환

○ 전기 기술: 구술과 청각의 부활. 5개 감각의 균형적 계발.

“전자적 상호의존성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이미지의 존재로 재창조하고 있다”

○ 기계주의와 전자 시대, 균질성과 동시성이 만나는 최전선 [interface, 공유영역성 interfaciality]

○ 그러나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전격적인 혁명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감정, 사회, 감각의 재편성.

○ 새로운 대중의 등장 (예술에의 참여) 대중예술의 성장: 저자적 주체성, 개별성의 극복, ‘구텐베르크 기술이 초월되는 순간’ (526)

○ 의식의 흐름 등의 새로운 표현 양식, 애드가 알렌 포우, 발레리, 등 -> 하나의 공개된 ‘장(field)’의 지각.

*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한 일은 우리의 알파벳과 인쇄술로부터 나온 기계적 기술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구형의 지각과 판단 형식에. 새로운 전자 시대의 형식들이 완전히 스며들었을 때 나타날 메커니즘과 문자성의 새로운 배열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전자적 은하계가 이미 구텐베르크 은하계 속으로 깊이 이동해 들어와 있다 [...]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관습적인 태도가 갑자기 고딕 건축의 이무기돌과 같이 그로테스크하게 뒤틀려진 것 같다.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와 기수들이 때로는 위협적이고 적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다층적인 전환...? (528) *